

창간호

1985.4.7

솔터

복되게 살려거든
내 혼계를 지키고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간직하여라.

(잠언 7-2)

창간사

주임신부 이은진 (도미니코)

공단도시 창원의 새로운 신앙의 보금자리로 그 모습을 드러낸 반송본당의 거취도 벌써 5년째

이제 본당으로서의 틀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도 본당의 회지를 가져야 하겠다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긴긴 태몽을 끝내고 첫 울음을 터뜨린 「솔터」의 탄생을 본당 신부로서 전 본당 신자와 함께 기뻐하여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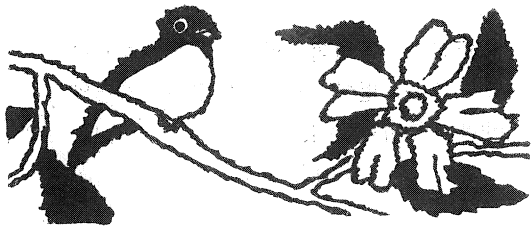
만물의 새싹이 움터나는 4월에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을 물리쳐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4월에 솔터전에서 새로운 솔이 돋아나고 그 모습을 움터 올리기 시작한 것도 또한 시기 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송본당의 월보 제호를 「솔터」라 명명하였습니다.

반송(盤松)이란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 본다면 솔터라 하겠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닫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비바람, 눈보라, 무더위온갖 이런 속에서도 사시사철 항상 푸른 소나무처럼 곧고 굳은 자세를, 절개를, 기상을 지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인의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의미를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그 詩로 잠깐 인용해 보았습니다.



「윤사월」

박 목 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판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판 집
눈먼 처녀사,

문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



새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한 부분을 꽃잎에 풀어 날리는 그 송화가루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작은 지면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희망을 돋우고 사랑을 나누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싹트고 어떻게 커 나 왔는가를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장(章)을 서로에게 알리고 싶은 이야기, 본당의 소식란등 용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결속시켜 주는 이기(利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외판 봉우리에 우뚝선 소나무처럼 신앙의 고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화의 초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정한 푸르름을 잃고 있는 이 세대를 정화시켜 주고 지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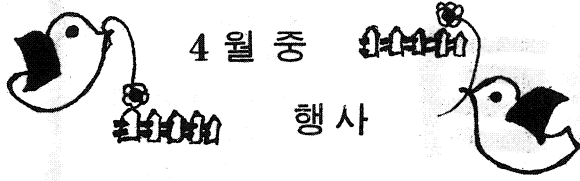
그리하여 꿈을 잃은 자에게는 푸른 희망의 꿈을 메마르고 목마른 자에게는 포근한 사랑과 시원한 생명수를

진실을 잃은 자에게는 싱싱한 믿음을 주는 한그루 소나무여야 하겠습니다.

지친 자들이 와서 쉴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나는 한그루 소나무이고 싶어라.”
여기 솔터(盤松)에 1,800 그루의 솔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발행 : 천주교 반송동교회



공 지 사 항

- 4월 5일 (금) 중.고등부 등반대회
9시-18시 (무척산)
공동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성 당)
십자가 장엄경배식
8호 8시 (성 당)
- 4월 8일 (월) 아침미사
- 4월 9일-12일 미사 없음.
- 4월 16일 (화) 구. 반장 교육
오후 1; 30 (교구청)
- 4월 17일 (수) 평협 월례회의
오후 8:00 (사제관)
- 4월 19일 (금) 구역미사 4구역 4반
오후 8:00 (종합기계 Apt 303호 지승규(도마대))
- 4월 21일 (일) 84년 부활 영세자 1주년 모임: (강당)
- 4월 23일 (화) 구역미사 4구역 3반
오후 8:00 (대원Apt 가동 510호 김홍진(마태오))
- 4월 24일 (수) Regio 미사
송(도마스 대)
- 4월 25일 (목) 구역미사 4구역 2반
오후 8:00 (현대Apt 6동 403. 성 마르코 대)
- 4월 26일 (금) 구역미사 4구역 1반
오후 8:00 (대원동 귀곡 세탁소. 이 도밍고 대)
- 4월 28일 (성소주일): 초. 중. 고등부 기념 백일장 및 체육대회
- 4월 30일 (화) 구역미사 3구역 6반 (롯데 Apt 포함)
322동 303호, 장복식 (요안) 대
- ※ 구역미사일에 본당에서는 미사가 없음.

- 성토요일 (4월 6일) 부활 성야
영세식-저녁 7:30
빛의 예식 및 성야미사 9:00

※ 초 준비 하실 것.

- 부활 대축일 (4월 7일)
어린이 축하미사 9:00
공식 미사 10:00

※ 저녁 미사 없음.

- 4월 14일 낮 미사후 여성연합회 정기회의
- 4월 22일 여성연합회 진영 성지순례 및 성모병원 환우 방문
- 부활초 봉헌
이영숙 (베로니카)
정화숙 (아셀라)



* 주일학교 통학 차량이 다음과 같이 운행
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	지 역 별	정 류 장
08:00	지 귀 동	상복동 유아원앞
08:05	명 곡	명곡 상가앞
08:15	대원동주택지	반도의류 백화점앞
08:20	대원동아파트	동사무소앞
08:30	외동. 중앙동	외동시장 입구 화랑표구사앞
08:37	용지 Apt	용지 Apt. 4단지 입구
08:40	"	용지 Apt. 3단지 입구

모든 눈동자가 당신을 찾고 있다.
오, 주님이여
당신은 일년내내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보시
고 당신은 손을 벌여 모든 만물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시나이다.

(시편 104)



사랑의 십사처

일처 : 사랑은 언제나 성부의 뜻과 하나가 된다.
 이처 : 사랑은 어떤 십자가도 과히 무거워하지 않으며 어떤 희생도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삼처 :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한다.
 사처 : 사랑은 언제나 남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아 얻는다.
 오처 :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다.
 육처 : 사랑은 조그만 수고라도 큰 선물로 갚는다.
 칠처 : 사랑은 불평하는 법이 없다.
 팔처 : 사랑은 고통 중에서라도 남을 위로할 줄 안다.
 구처 : 사랑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더욱 커질 뿐이다.
 십처 : 사랑은 마지막 것까지 내어 준다.
 십일처 : 사랑은 하느님의 매질을 당해도 묵묵히 견딘다.
 십이처 :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십삼처 : 사랑은 모두가 절망할 때라도 사랑은 믿고 신뢰한다.
 십사처 : 사랑이 쉬는 것은 다만 새로운 사랑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다.

□ 느 낌 시 다 □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속코자 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고통없이 사랑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들도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뇌와 불행의 폭풍중에서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 하라!

묵상詩

사 랑 하 는 가

추원신부 이 은진 (도미니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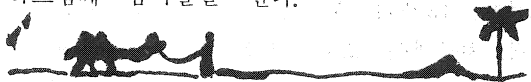
어부 베드로
 그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었다.
 커다란 실수를 연발하는 나약한 무지한 사람이었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겨우 몇시간 만에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가볍게 배반할 만큼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다.
 닭의 울음소리에 놀라 그리스도를 바라 보았을 때
 피와 땀의 투성이의 상처로 일그러진 그리스도는 연민의 눈으로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고 주가는 기록하고 있다.

부활 후의 그리스도,
 그는 한 번도 베드로에게 그 아픈 상흔을 물어 본 일이 없다.
 그때선 그는 “나를 사랑 하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사랑이란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묻고 아픔을 낫게하는 영약인가 보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것 같다.
 슬하게 범하는 우리의 죄악과 온갖 잘못앞에 그는 눈먼 소경이 되어 우리에게 이것만을 묻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사 랑 은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을 알고
 하느님께서 기쁨이 되시는 줄을 알며
 하느님께 바랄줄 알고
 하느님께 경외심을 가질줄 알며
 하느님께 성실할줄 알고
 하느님께 감사할줄 안다.





사랑에 이르는 길

1. 알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 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2. 작은 희생들을 바침에 그대를 과감히 수련시키라!
3. 그대 안에 더 큰 사랑에 대한 원의를 기르라.
4. 묵상기도를 지극히 중히 여기라.
5. 하느님께서 매일 그대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부단히 주의를 기울이라.
6.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라.
7. 사랑의 행동을 자주 일깨우라.
8. 무엇보다 사랑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1. 삼종기도

삼종(三鍾)은 종을 세번 친다는 말이다. 이 종소리를 듣고 외는 기도라 해서 삼종기도라 한다.

종을 세번씩 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강생구속도리가 셋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삼종기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팔레스티나 성지(聖地)를 외교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을때,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11세기에 십자군이란 군대가 일어났다.

십자군이 성지회복을 위해 떠날때 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성당종을 세번 치며 기도를 바치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십자군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그때 교우들은 그 아름다운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도를 바쳤다. 그래서 이것이 13세기 부터는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위 만종이라 해서 저녁에만 바쳤던 것이 차차 아침에도 바치게 되

었고, 얼마 후에는 정오에도 이것을 바치게 되었다 한다. 밀레의 만종이란 것이 바로 저녁 삼종 종을 말한다.

평시 삼종기도는 보통매는 높이 꿰어서 바치고 주일날은 기쁨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어서서 바친다.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저녁에도 서서 바쳐야 한다.

2. 부활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를 전에는 희락(喜樂) 삼종경이라고 했는데이것은 기쁨을 드러내는 기도문이란 뜻이다.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때는 부활시기이다.

그래서 부활삼종기도는 부활주일 전날 정오부터 성삼주일 전날 정오까지 바치되 기쁨을 드러내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늘 일어서서 바쳐야 한다.



기 도

나로 하여금 위험을 벗어나 피하고자 축원을 올리게 마옵시고,
위험을 당하여도 두려움 없기를 축원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억제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써 고통을 이기도록 빌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지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찾도록 하여 주소서.

고생스런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써 내 자유를 이겨 찾도록 희망하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겁장이가 되어, 내 성공에서만 당신의 자비를 느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고, 내가 실패를 당할때 당신의 손이 나를 잡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라빈 드라나드 타폴)